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에서 SNS 사용동기의 매개효과*

이 승 미

신 나 영†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선행연구들은 사이코패시 성향이 행위중독과 관련되며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개인들이 위력을 과시하거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사이코패시 성향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의존과 SNS 사용동기를 조사하고 이 변인들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를 살펴보고 위력과시 및 부정적 영향력 동기를 포함한 SNS 사용동기가 이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조사하였다. 21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중독경향성 척도, SNS 사용동기 척도, 위력과시 및 부정적 영향력 동기 질문지를 사용하여 SNS 과의존도와 SNS 사용동기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코패시 성향은 SNS 과의존을 예측하였으며, 장점표현 동기와 부정적 영향력 동기가 이 둘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NS에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가 SNS 과의존으로 이어질 만큼 사이코패시 성향을 지닌 개인들에게 강력한 사회적 보상 기제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사이코패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사용동기, SNS 과의존

* 본 연구는 이승미(2020)의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사이코패시와 SNS 사용: SNS 사용동기를 중심으로’를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신나영,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E-mail: shinny@kyonggi.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사이코패시는 대인관계, 정서, 행동 영역에서 광범위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성격장애이다(DeLisi, 2009; Hare & Neumann, 2008).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웅대한 자기가치감, 병리적 거짓말, 타인 조종, 사회적 지배성 등을 나타내며, 정서적으로 공감능력과 죄책감이 부족하고, 무책임함과 행동통제의 어려움을 보인다(Hare & Neumann, 2008). 일반 인구의 1%가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도소 수용자 중에서는 25%에 이를 만큼 범죄와의 관련성이 높다(Hare, 2003).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을수록 타인을 냉담하게 대하는 것에 보다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에는 즐거움을 덜 느낀다(Foulkes et al., 2014). 이러한 특성은 온라인에서 인터넷 해킹, 타인을 화나게 하거나 당황스럽게 하는 것을 일컫는 트롤링(trolling)이나 사이버 따돌림(cyber-bullying)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Craker & March, 2016; Goodboy & Martin, 2015; Fox & Rooney, 201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 밴드 등 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칭한다(이정권, 최영, 2015).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8.2%가 SNS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많은 개인들이 직업 및 대인관계 네트워크를 온라인으로 확장하거나 대체하고 있다. SNS는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소속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적 단절에 따른 부정정서에 대처하도록 돕는 순기능을 갖지만(Carpenter et al., 2010; Martinez, 2017; Seidman, 2012; Sheldon et al., 2011), 지나친 의존은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을 해칠 수 있다(이수정, 2019; 이소영, 전혜정, 2015). SNS 중독은 개인의 일상적 적응을 해칠

만큼 SNS 사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를 일컫는다(Brailovskaia et al., 2020).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SNS 중독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김은영, 김상미, 2022; 장철, 김인섭, 2022; Brailovskaia et al., 2020), 자기애, 낮은 자존감, 희열욕구(the need for gratification) 등과 같은 심리적 성향이 SNS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 등, 2023; Andreassen et al., 2017; Ryan et al., 2014).

선행연구들은 사이코패시 성향이 물질남용 및 행위중독과 관련됨을 비교적 일관적으로 관찰해 왔다(Jauk & Dieterich, 2019).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극추구적이고 자기통제력과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한다(Jonason & Tost, 2010; Jones & Figueredo, 2013), 이는 물질 및 행위 중독의 발달 기제와 관련된다(Blachnio & Preepiorka, 2016; Jauk & Dieterich, 2019).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비율이 사이코패시 성향을 지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높았으며(Smith & Newman, 1990), 사이코패시 성향은 물질 남용 및 의존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Hemphill et al., 1994). SNS의 경우, 사이코패시 성향이 SNS 중독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Chun et al., 2019) 연령, 성별, 다른 성격 요인 등을 통제한 후에도 SNS 중독을 예측했다(Lee, 2019).

선행연구들은 SNS 중독의 발달기제에 있어 SNS 사용동기의 영향을 강조하여 왔다. SNS 사용동기는 연령, 성별, 심리적 문제 등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페이스북(Facebook)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유지 및 증진, 시간 때우기, 즐거

움 고양, 외로움 회피,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대처 등을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Chabrol et al., 2017; Ryan et al., 2014).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나 관계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SNS를 사용하기도 하며(Shin & Lim, 2018), 타인에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타인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 확인하기 위해 SNS를 사용한 다(Sariyska et al., 2019; Seidman, 2012; Valdez et al., 2018). 이러한 SNS 사용동기는 SNS 과의존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실도피, 자기제시, 정보수집, 대인관계 동기 등 여러 동기가 지나친 SNS 사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Miranda et al., 2022).

Foulkes 등(2014)은 찬사,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력 행사, 수동성, 친사회적 상호작용, 성적 보상, 교제 등 6가지 사회적 보상 중 사이코패시 성향이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력 행사와 가장 강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친사회적 상호작용과 강한 부적상관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사이코패시 성향이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비전형적인 보상 처리과정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실제로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온라인에 공개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조종하기도 하고(Sariyska et al., 2019), 선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내용을 고의적으로 온라인에 올려 타인의 감정적인 반응을 부추기기도 한다(Craker & March, 2016). 또한 온라인상에서 위력, 권력, 갈등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보다 자주 언급하고(Bogolyubova et al., 2017), 사회적으로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opes & Yu, 2017). 이러한 결과들은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을 통제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회적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이코패시의 이러한 심리적 성향이 SNS에 대한 지나친 사용을 초래하는지, 사이코패시에 있어 어떤 SNS 사용동기가 SNS 과의존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들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제공하여 개입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 간의 관계에 있어 SNS 사용동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시의 SNS 사용동기를 포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었으며, 사이코패시의 SNS 과의존에 있어 SNS 사용동기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 또한 없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사이코패시 성향은 SNS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위력과 부정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동기와 가장 강하게 관련될 것이며 이 동기가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방 법

참여자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4년제 대학교에서 교양과목 수업을 수강하며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1학년 학생 21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93.8%가 20대였고, 55.5%가 여성이

었다. 모든 참여자들이 SNS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대부분 초등학교(43.6%)나 중학교(47.4%)부터 SNS를 사용해왔다고 보고하였다. 자주 사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54.5%), 페이스북(33.6%), 트위터(9.5%), 다음카페(1.4%), 카카오톡(0.5%), 블로그(0.5%) 순이었다. SNS 연결 횟수는 하루 평균 11.5(SD=11.8)회였으며 1회 사용시간은 평균 20.0(SD=25.4)분이었다.

측정도구

SNS 사용동기 척도

SNS 사용동기는 Shin과 Lim(2018)이 개발한 것을 Lim(in press)이 개정한 SNS 사용동기 척도 개정판(Social Network Site Use Motives Scale-Revised, SUMS-R)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보, 기분 고양, 사교, 동조, 대처, 소일, 장점표현, 단점은폐 동기 등 8가지 사용동기에 대해 각 동기마다 5문항씩 5점 리커트 척도에 기반해 평가한다. 정보 동기는 SNS 상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양 동기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일 동기는 무료하고 지루한 권태와 같은 부정 정서를 줄이기 위해, 사교 동기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동조 동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제되지 않기 위해, 대처 동기는 스트레스나 우울, 걱정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상쇄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장점표현 동기와 단점은폐 동기는 자기제시 동기로, 장점표현 동기는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단점 은폐 동기는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감추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Shin

과 Lim(2018) 연구에서 정보-고양 동기, 사교-동조 동기, 대처 동기, 소일 동기 등 4개의 요인구조를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들 동기를 4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Lim(in press)의 연구에서 8개 동기의 내적일치도는 .78~.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8~.89이었다.

위력과시 및 부정적 영향력 동기 질문지

SNS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동기를 평가하기 위해 Valdez 등(2017)이 위력/통제 동기 문항으로 제시한 3개 문항(예: 직장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이 충분히 일하는지 통제할 수 있다)과 Foulkes 등(2014)이 개발한 Social Reward Questionnaire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력 요인에 포함된 5개 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 즐겁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이 즐겁다)에 기초해 임상심리학 전문가 2인과 범죄심리학 전공자 1인의 논의를 거쳐 16개의 예비문항을 만들었다. 개발한 예비문항들의 요인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자가 아닌 대학생 168명(여성 106명, 연령 21.7±2.1세)을 대상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요인구조 분석을 위해 요인을 1개로 설정하고 주축요인추출 방식을 사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요인 부하 값에 기초해 문항들 중 상대적으로 요인 부하 값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는 한편, 선별된 문항들의 문항내용이 유사할 경우 요인 부하 값이 보다 작은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총 8개 문항을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으며, 위력과시 동기 4문항과 부정적인 영향력 동기 4문항이 분석에 포함되었다(표 1). 최종

표 1. 위력과시 및 부정적 영향력 동기 척도의 문항

구분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포함 문항	위력과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SNS에 접속한다	.68	
	나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SNS를 이용한다	.65	
	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SNS에 접속한다	.54	
	SNS에 접속할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힘을 보일 수 있다	.70	
	부정적 영향력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재미있어서 SNS를 이용한다	.71	
	SNS에 접속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할 수 있다	.82	
	나는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SNS에 접속한다	.68	
	SNS에 접속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할 수 있다	.82	
	제외 문항	위력과시 SNS를 사용할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5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힘을 보이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60
SNS를 이용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		.60	
SNS에 접속할 때 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56	
부정적 영향력 SNS를 사용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		.43	
나는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하기 위해 SNS에 접속한다		.74	
SNS를 이용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		.68	
나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71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89 이었다.

SNS 중독경향성 척도

SNS 과의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정소영과 김종남(2014)이 개발한 SNS 중독경향성 척도(SNS Addiction Proneness)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몰입 및 내성, 일상생활 장애 및 조절실패, 부정정서의 회피, 가상 세계 지향성 및 금단 등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개 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SNS 과의존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91 이었다.

청소년 정신병질 특성 척도

사이코패시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Andershed (2002)가 개발하고 김동민(2005)이 한국판으로 개정한 청소년 정신병질 특성 척도(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 YPI)를 사용하였다.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실시 가능한 척도로, 본 연구의 참여자가 모두 대학교 1학년으로 후기 청소년에 해당되어 본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인, 정서, 행동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 요인은 부정적 매력, 자기과시, 거짓말, 조종 등 4가지 하위척도를 포함하며 정서 요인은 무죄책감, 무감동 냉담 하위척도를, 행동 요인은 자극추구, 충동성, 무책임 하위척도를 포함한다. 총 5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92 이었다.

자기애적 성격 척도

사이코패시와 함께 어둠의 3요인 성격요인 중 하나인 자기애적 성격 경향성을 평가하기 위해 Raskin과 Hall(1979)이 개발하고 한수정(1999)이 변안한 자기애적 성격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를 사용하였다. 총 4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제시된 두 개의 항목 중 자신을 더 잘 설명하는 항목을 선택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적 성격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88 이었다.

자료 분석

분석은 SPSS 27.0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를 사용해 참여자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각 척도의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사이코패시와 함께 어둠의 3요소의 하나로 사이코패시와 관련성이 높은 자기애적 성격 경향성을 통제된 후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사용동기 간의 상관성이 여전히 유의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편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에 있어 SNS 사용동기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모형 절차(4번)를 사용해 다중매개분석(Multiple medi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Preacher & Hayes, 2008). 매개효과는 5,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통해 확인하였고 95% 신뢰구간에 기초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표 2에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와 평균 및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상관분석 결과, 사이코패시 성향은 SNS 과의존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자기애적 성격 경향성은 SNS 과의존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사이코패시 성향과 자기애적 성격 경향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이코패시 성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SNS 사용동기는 사교-동조, 장점표현, 단점은폐, 위력과시, 부정적 영향력 동기였다. 자기애적 성격 경향성을 통제한 후,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사용동기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단점은폐($r=.22$), 위력과시($r=.23$), 부정적 영향력 동기($r=.28$)만이 사이코패시 성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에 있어 SNS 사용동기의 매개효과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에 있어 SNS 사용동기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표 3과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전체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201)=40.72, p<.001$), SNS 과의존의 80%를 설명하였다. SNS 과의존에 대한 사이코패시 성향의 전체 효과는 유의하였다($t=2.30, p<.005$). 사이코패시 성향은 SNS 사용동기들 중 사교-동조 동기($t(209)=3.11, p<.05$), 장점표현 동기($t(209)=2.30, p<.05$), 단점은폐 동기

표 2. 측정변인의 상관관계($n=211$)

	1	2	3	4	5	6	7	8	9	10	11
1. 사이코패시 성향	-										
2. 자기애적 성격 경향성	.42**	-									
3. SNS 과의존	.20**	.03	-								
4. 정보-고양 동기	.03	.04	.40**	-							
5. 사교-동조 동기	.21**	.23*	.44**	.34**	-						
6. 소일 동기	.06	.04	.46**	.54**	.36**	-					
7. 대처 동기	.08	.01	.66**	.47**	.45**	.62**	-				
8. 장점표현 동기	.16*	.30**	.50**	.45**	.56**	.45**	.42**	-			
9. 단점은폐 동기	.24**	.10	.59**	.20**	.52**	.56**	.56**	.45**	-		
10. 위력과시 동기	.34**	.35*	.54**	.21*	.55*	.25**	.43**	.59**	.59**	-	
11. 부정적 영향력 동기	.31**	.13	.52**	.01	.26**	.05	.32**	.18*	.59**	.50**	-
평균	79.5	13.9	45.9	35.6	27.1	17.6	12.1	14.2	9.3	7.4	5.7
표준편차	16.5	7.6	11.5	25.9	6.7	3.2	3.8	4.4	3.4	2.9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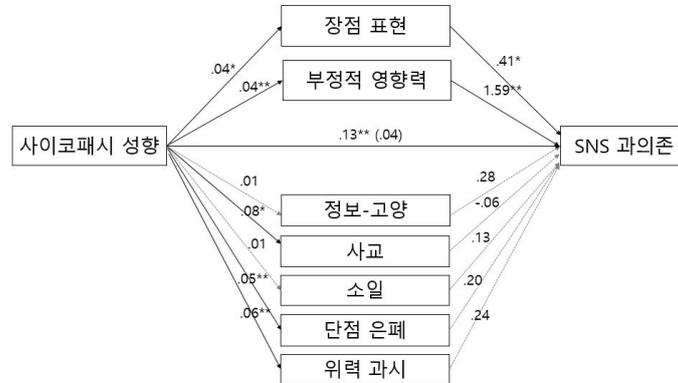
* $p < .05$, ** $p < .01$,

표 3.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에 대한 다중매개분석 결과

독립변인 (IV)	매개변인 (M)	종속변인 (DV)	Effect of IV on M	Effect of M on DV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95% CI
사이코패시 성향	정보-고양	SNS 과의존	.01	.28	.13**	.04	.00	-.01, .02
	사교동조		.08*	-.06			.00	-.02, .01
	소일		.01	.13			.00	-.004, .01
	대처		.02	1.20**			.02	-.01, .06
	장점표현		.04*	.41*			.01	.002, .04
	단점은폐		.05**	.20			.01	-.01, .03
	위력과시		.06**	.24			.01	-.01, .05
	부정적 영향력		.04**	1.59**			.06	.02, .10

* $p < .05$, ** $p < .01$. CI, 신뢰구간. 굵은 글씨는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냄

($t(209)=3.58$, $p < .001$), 위력과시 동기($t(209)=5.19$, $p < .001$), 부정적 영향력 동기($t(209)=4.64$, $p < .001$)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SNS 사용동기들 중 SNS 과의존을 유의하게 예측한 동기는



** $p < .01$, * $p < .05$.

괄호 내 수치는 직접효과의 표준화 회귀계수,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그림 1.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에 대한 SNS 사용동의 다중매개효과

정보-고양 동기($t(201)=2.64, p < .05$), 대처 동기 ($t(201)=6.12, p < .001$), 장점표현 동기($t(201)=2.54, p < .05$), 부정적 영향력 동기($t(201)=5.26, p < .0001$)이었다. 매개변인인 SNS 사용동기가 모형에 투입된 후, SNS 과의존에 대한 사이코패시 성향의 직접효과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아 SNS 사용동기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1)=.13, p=.67$).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에 있어 SNS 사용동기의 전체 매개효과는 유의하였고($B=.13, 95\% \text{ CI: .05 to .20}$), 장점표현 동기($B=.02, 95\% \text{ CI: .002 to .04}$)와 부정적 영향력 동기($B=.06, 95\% \text{ CI: .24 to .10}$)가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를 조사하고 이 둘의 관계를 SNS 사용동기가 매개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시 성향과 다양한 SNS 사용동기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조사한

최초의 연구로, 사이코패시 성향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SNS 사용이 특정한 사용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사이코패시 성향은 SNS 과의존을 예측하였으며, SNS 사용동기 중 장점표현 동기와 부정적 영향력 동기가 이 두 변인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이코패시 성향은 사교-동조, 자기제시, 위력과시, 부정적 영향력 동기 등을 예측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이코패시 성향은 온라인에서 타인을 화나게 하거나 당황스럽게 하는 트롤링 행위나 사이버 따돌림과 관련된다고 보고되어 왔다(Craker & March, 2016; Goodboy & Martin, 2015; Fox & Rooney, 2014).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고 자기를 표현하는 동기를 지님과 동시에,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 위력을 과시하거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욕구가 강함을 시사한다. 이는 사이코패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SNS에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부정직하게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타인을 지배하고 조종하려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Fox & Rooney, 2014).

본 연구 결과, SNS 사용동기들 중 장점표현 동기와 부정적 영향력 동기는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려는 욕구를 지니며, 이러한 욕구가 SNS의 지나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이코패시 성향을 지닌 개인들에게 온라인에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드러내고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강력한 사회적 보상 기제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친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보상적이지 못한 반면, 타인에게 잔인함을 드러내는 행위는 보상으로 작용하며(Buckels, Trapnell & Paulhus, 2014; Foulkes 등, 2014) 타인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행동에 즐거움을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Foulkes, MacCrory et al., 2014).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잔인성을 드러내는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되어 있는데(Foulkes, Viding 등, 2014), 본 연구결과와 종합해볼 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상관없이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욕구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러한 욕구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대한 몰두나 트롤링 행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Foulkes 등, 2014).

본 연구의 가설과 달리 위력과시 동기는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코패시 성향이 위력을 과시하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동기를 예측하였으나 이러한 동기가 SNS의 지나친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개인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을 통제하고 우월감을 획득하는 욕구를 지니지만, SNS에 몰두하게 할 만큼 강력한 사회적 보상기제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에서 위력을 과시하려는 욕구보다 타인을 화나게 하거나 당황스럽게 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 영향력 행사 욕구가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은 개인을 행위중독에 이르게 할 만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보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어둠의 성격 요소의 하나인 자기애적 성격 경향성을 통제한 후 사이코패시 성향과 사교-동조 동기 및 장점표현 동기 간의 상관성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사이코패시에서 나타나는 웅대한 자기가치감, 공감 능력 부족 등은 자기애적 성격에서도 관찰되는 심리적 특성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려는 동기가 사이코패시 특성 중 자기애적 성향과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장점표현 동기는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이코패시의 자기애적 특성이 이러한 결과에 기여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SNS 사용동기들 중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동기가 SNS에 대한 과의존을 초래할 만큼 사이코패시 성향과 강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에 대한 개입에 있어 친사회적 기술의 훈련을 통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친사회적 행동이 보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큼, 다른 연령대 또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나 사이코패시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들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사이코패스를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 심층면접 등 질적 연구 또한 실질적인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SNS 과의존과 관련될 수 있는 여타 물질 및 비물질 중독 여부나 자기에 성격 경향성 외에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성향들을 조사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SNS 과의존과 관련된 여러 오염요인들을 통제된 후에도 유효한지를 살펴보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이코패시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모두 대학교 1학년으로 청소년 후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거나 정확한 연령을 조사하지 않았다. 넷째, SNS 과의존과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예: 사용빈도, 스트레스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이코패시 성향과 SNS 과의존 및 사용동기의 관계를 최초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SNS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SNS 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김동민, 박현진, 김지훈 (2005). 청소년 정신병질 특성 척도 타당화.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57-176.
김명진 (2019). 자기애와 SNS 중독의 관계: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영, 김상미 (2022).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우울과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4), 116-129.
이소영, 전해정 (2015). SNS 이용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및 충동성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 16(11), 7607-7616.
이수정 (2018). 최신범죄심리학 4판. 서울: 학지사.
이수정 (2019).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이 자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주, 정효빈, 김보배 (2023).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4), 769-782.
이정권, 최 영 (2015).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연구. 한국언론학보, 59(1), 115-148.
장 철, 김인섭 (2022). 대학생의 소외에 대한 두려움, SNS 중독경향성과 우울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통합의학회지, 10(3), 151-159.
정소영, 김종남 (2014). 대학생용 SNS중독 경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19(1), 147-166.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dershed, H., Gustafson, S. B., Ker, M., & Starin, H. (2002). The usefulness of self-reported psychopathy-like traits in the study of antisocial behavior among non-referred adolescent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6, 383-402.
Andreassen, C. S., Pallesen, S., & Griffiths, M. D.

-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addictive use of social media, narcissism, and self-esteem: Findings from a large national survey. *Addictive Behaviors*, 64, 287-293.
- Bogolyubova, O., Panicheva, P., Tikhonov, R., Ivanov, V., & Ledovaya, Y. (2018). Dark personalities on Facebook: Harmful online behaviors and languag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8, 151-159.
- Brailovskaia, J., Schillack, H., & Margraf, J. (2020). Tell me why are you using social media (SM)! Relationship between reasons for use of SM, SM flow, daily stress, depression, anxiety, and addictive SM use-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young adults in German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13, 106511.
- Buckels, E. E., Trapnell, P. D., & Paulhus, D. L. (2014). Trolls just want to have fu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7, 97-102
- Carpenter, J. M., Green, M. C., & LaFlam, J. (2011). People or profiles: Individual differences in online social networking us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5), 538-541.
- Chabrol, H., Laconi, S., Delfour, M. & Moreau, A. (2017). Contributions of psychopathological and interpersonal variables to problematic Facebook use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 Risk Behaviors and Addiction*, 6, e32773.
- Craker, N., & March, E. (2016). The dark side of Facebook®: The Dark Triad, negative social potency, and trolling behaviou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2, 79-84.
- Chung, K. L., Morshidi, I., Yoong, L. C., & Thian, K. N. (2019). The role of the dark tetrad and impulsivity in social media addiction: Findings from Malaysi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3, 62-67.
- DeLisi, M. (2009). Psychopathy is the unified theory of crime.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7(3), 256-273.
- Foulkes L., Viding E., McCrory E, & Neumann C. (2014). Social Reward Questionnaire (SRQ): development and valid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5, 201.
- Foulkes L., Seara-Cardoso A., Neumann C. S., Rogers J. S. C., & Viding E. (2014). Looking after number one: Associations between psychopathic traits and measures of social motivation and functioning in a community sample of male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6, 22-29.
- Fox, J., & Rooney, M. C. (2015). The Dark Triad and trait self-objectification as predictors of men's use and self-presentation behaviors on social networking si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6, 161-165.
- Goodboy, A. K., & Martin, M. M. (2015). The personality profile of a cyberbully: Examining the Dark Triad.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9, 1-4.
- Hare, R. D. (2003). *Manual for the revised psychopathy checklist(2nd ed.)*. Toronto, ON: Multi-Health Systems.
- Hare, R. D., & Neumann, C. S. (2008). Psychopathy as a clinical and empirical construc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4, 217-246.
- Hemphill, J. F., Hart, S. D., & Hare, R. D.

- (1994). Psychopathy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8(3), 169-180.
- Jauk, E., & Dieterich, R. (2019). Addiction and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Frontiers in Psychiatry*, 10, 662.
- Jonason, P. K., & Krause, L. (2013). The emotional deficits associated with the Dark Triad traits: Cognitive empathy, affective empathy, and alexithymi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5), 532-537.
- Jonason, P. K., & Tost, J. (2010). I just cannot control myself: The Dark Triad and self-contro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6), 611-615.
- Jones, D. N., & Figueredo, A. J. (2013). The core of darkness: Uncovering the heart of the Dark Triad.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7(6), 521-531.
- Lee, S. L. (2019). Predicting SNS addiction with the Big Five and the Dark Triad. *Cyberpsych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on Cyberspace*, 13(1), Article 3.
- Lim Y. (in pres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ocial Network Site Use Motives Scale-Revised. *Psychiatry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 Lopes, B., & Yu, H. (2017). Who do you troll and why: An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rk Triad Personalities and online trolling behaviours towards popular and less popular Facebook profil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7, 69-76.
- Martinez, C. (2017). Who uses social networking sites? Exploring associations among personality and the relationship with Facebook, Twitter, and Instagram. *McNair Scholars Research Journal*, 13(1), 12.
- Miranda, S., Trigo, I., Rodrigues, R., & Duarte, M. (2023). Addiction to social networking sites: Motivations, flow, and sense of belonging at the root of addic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88, 122280.
- Paulhus, D. L., & Williams, K. M. (2002).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6), 556-563.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askin, R. N.,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2), 590.
- Ryan, T., Chester, A., Reece, J., & Xenos, S. (2014). The uses and abuses of Facebook: A review of Facebook addiction.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3, 133-148.
- Sariyska, R., Lachmann, B., Cheng, C., Gnisci, A., Sergi, I., Pace, A., . . . Montag, C. (2019). The motivation for Facebook use - Is it a matter of bonding or control over others?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40(1), 26-35.
- Seidman, G. (2013). Self-presentation and belonging on Facebook: How personality influences social media use and motiv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3), 402-407.

- Sheldon, K. M., Abad, N., & Hinsch, C. (2011). A two-process view of Facebook use and relatedness need - satisfaction: disconnection drives use, and connection reward s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4), 766-775.
- Shin, N. Y. & Lim, Y. J.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Network Site Use Motives Scale for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36(8), 808-815.
- Smith, S. S., & Newman, J. P. (1990). Alcohol and drug abuse-dependence disorders in psychopathic and nonpsychopathic criminal offen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4), 430.
- Valdez A. C., Brell J., Schaar, A. K. & Ziefle M. (2018). The diversity of why: a meta-analytical study of usage motivation in enterprise social networks. *Universal Access in the Information Society*, 17, 549-566.
- 1차원고접수 : 2023. 08. 12.
심사통과접수 : 2023. 09. 18.
최종원고접수 : 2023. 10. 15.

Mediation Role of Social Networking Site(SNS) Use Motives in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ic Traits and SNS Dependence

Seung Mi Lee

Na Young Shin[†]

Kyonggi University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high psychopathic traits are associated with trolling and cyber bullying, which may be intended to exert negative influence on others. However, there has yet been studies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ic traits, social network service (SNS) use motives, and SNS depend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ic traits and several SNS use motives, and examined mediating role of SNS use motives on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ic traits and dependence on SNS. In our study, 211 college students administered the SNS Addiction Tendency Scale and the SNS Use Motive Scale and the power and social potency motive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authors based on previous research. We found that the psychopathic traits significantly predicted dependence on SNS. The positive self-presentation and negative social potency motives perfec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pathic traits and dependence on S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online behaviors of persons with psychopathy traits may be associated with SNS use motives for positively presenting self and showing negative influence on others, which might serve as a reward for individuals with psychopathic traits and lead to SNS addiction.

Key words : Psychopathy,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use motives, SNS addiction

[†] Na Young Shin, Kyonggi University, Forensic and Correctional Psychology, professor, 154-42 Gwangkyosanro, Youngtonggu, Suwon, Kyonggido, South-Korea, E-mail: shinny@kyonggi.ac.kr